

일주문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참가자 모집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제42기 단기출가학교를 연다.



동국대 빅데이터 워크숍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8월 21일 경주시와 함께 교내 벤처창업보육센터에서 '빅데이터 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악과 함께하는 불화전
박경규 선아트스페이스 원장은 8월 22일~24일 북촌 전통예술 축제, 국악과 함께하는 불화전 '5품5색 세 번째 이야기'를 펼쳤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동국대 명예박사 받아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8월 21일 서울캠퍼스 분관 중앙당에서 열린 2014학년도 가을 학위수여식에서 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 회장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축사에서 "이기흥 회장은 불교의 포교 활동영역을 스포츠 분야로 확장시켜 한국불교 발전과 국가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사업을 통해 자비와 나눔이라는 불교 정신을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총지중 前중앙총의회 의장 대자행 지수 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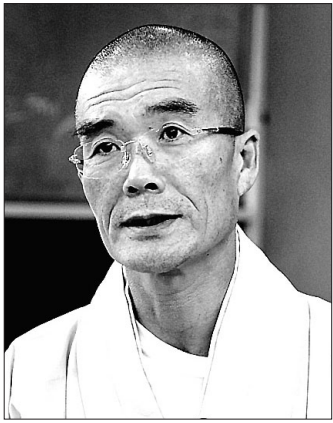
8월 21일 고결식 및 연화식 봉행



원정 대성사와 함께 불교총지중 창중을 함께한 대자행(大慈行) 지수가 8월 19일 새벽 열반했다. 속명은 김재영(金在泳), 세수 96세, 법랍 42년.
경북 달성 출신인 대자행 지수는 불교총지중 창중 초대 원로 스승 중 한 명이다. 불교총지중 재단법인 초대이사, 총명자문위원, 응신서원당 주교, 중앙총의회 의장, 지인사 주교를 역임했다. 다비식은 8월 21일 서울 연화원에서 열렸으며, 49재는 총지사에서 봉행된다. 김주일 기자

“세월호 해결책 계속 모색할 터”

세월호 특별법 촉구 단식 종료
조계종 노동위원 도철 스님



“세월호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동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8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3천백과 함께 32일간 단식을 해오다 종료한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 이하 노동위) 노동위원 도철 스님이 이 같이 말했다.

도철 스님은 8월 21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2일간 단식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단식을 하면서도 ‘이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유가족 옆에 앉아 있다가 때로는 민망하기도 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도철 스님은 세월호 특별법 촉구를 요구하며 광화문 세월호 가족 단식장에서 7월 14일부터 8월 16일 단식을 진행했다. 스님은 단식기간에 몸무게가 12kg 정도 빠졌으며 현재 조계사에서 몸을 보습하며 요양 중에 있다.

도철 스님은 “현재 몸은 괜찮다. 유민이 아버지(김영오 씨)이 걱정될 뿐”이라며 “단식을 먼저 종료하게 돼 미안한 마음이 앞서

“단식 먼저 종료해 미안한 마음뿐”
세월호 사건 본질 흐려져 답답
통합적 대사회적 기구 필요

지만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어 주자는 마음으로 단식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철 스님은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본질과 다르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 같아 한국사회의 왜곡된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며 씁쓸해 했다.

스님은 “사건의 본질을 요구하는 엄연한 당사자의 주장이 있음에도 특례 입찰 및 보상이나 돈으로 치부되는 물질로 덮힐 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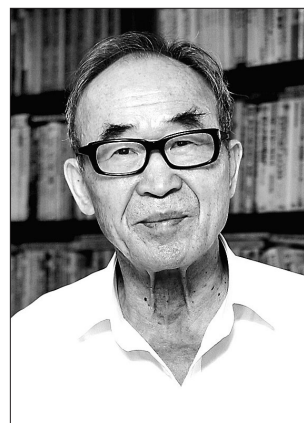
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모습에 많은 답답함을 느꼈다”며 “세월호 사건도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 자리지키기와 진급에 눈먼 행정관료 등 눈먼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에 불거지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이 문제라 본다”며 “해방 이후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 졌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상 조사 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진상 조사해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 세월호 가족의 뜻이자 국민들의 여망”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철 스님은 불교 종단도 사회적 실천기구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인권·노동·환경·장애·빈곤·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문제를 다루어 나갈 통합적인 대사회적 실천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재 노동위가 있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한과 한계를 느낀다”며 “총명기구가 아닌 총현기구가 제정,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해 스님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또 실질적으로 스님들이 중심을 잡으며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고은 시인, 황금화관상 받는다

8월 24일 수상... 노벨문학상 등급 권위



한국 문단의 대표적인 시인 고은(81·사진)이 8월 24일 마케도니아 스트루가 시 축제에서 ‘황금화관상’을 수상한다.

마케도니아 스트루가 시 축제는 1962년부터 시작된 국제행사로 전세계 95개국 4,000여명의 시인·번역가·수필가·문학비평가들이 참여해왔다. 황금화관상은 축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파블로 네루다(1971년), 에우제니오 몬탈레(1975년), 조지프 브로드스키(1987년), 세이머스 히니(1995년) 등 유명 시인이 다수 포진해 있다. 2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마케도니아에서 고은 시인의 식목행사와 시 낭송회가, 정오에는 기자회견이 개최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고은 시인은 18세의 나이로 출가하여 정진하던 중 1958년 <현대시>, <현대문학> 등에 추천되어 문단활동을 시작한 후, 현재 150여권에 이르는 저서를 남겼다.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노르웨이 본슨문학훈장, 캐나다 그리핀공로상 등 국내외 문학상을 다수 수상한 대표적 문인이다. 고은 시인은 본지 창간 연재소설 <수미산>을 연재했으며 장간 논설위원도 지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그러진 인간 탈출 본능 표현

개인전 연 불자 도조 작가 기동규 씨



불자 도조 작가 기동규 씨(사진)가 초대전 ‘생각 너머(Beyond the thinking)’를 8월 20일~26일 인사동 통인회관에서 열었다. 도자기와 조각을 융합한 ‘도조’ 분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그는 이번 전시에서 독특한 형상의 19점을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그의 작품은 육각의 프레임에 일그러진 도자가 합쳐진 독특한 형상으로, 기존 규범에서 탈출하려는 인간 본능을 표현한다. “프레임과 도자를 각각 따로 초벌구이해 재벌구이 때 합쳐 구워내면서 우연의 효과로 작품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자 작업과는 다른 역발상을 통해 디자인적 아름다움을 추구했죠.”

17살 때부터 도자기를 시작해 도조 분야를 개척해온 그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었다. 마음치료 등으로 이를 극복하며 예술적 깊이는 더 깊어졌다. “퇴원하자마자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간의 생각을 모두 쏟아 부었죠. 한번 물레를 잡으면 하루 스무 시간씩 작업하며 삼매에 드는 듯 집중해요. 저는 그래서 작업 자체가 수행입니다.”

한편, 기동규 작가는 청주대 공예학과를 졸업하고 경기 국제도자비엔날레, 대한민국미술대전 등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 뉴욕 등 해외에서 도조미술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천태종, 삼회향놀이·영산대제



영가천도와 평화통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천태종 수륙영산대제 및 생전예수제가 삼회향놀이를 끝으로 여법하게 회향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8월 19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수륙영산대제 및 생전예수제 소전식을 봉행했다.

8월 15일 입재한 영산대제에는 1만 불자가 동참했으며 19일 소전식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본 의식 이후에는 충북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5호인 삼회향놀이가 펼쳐졌다. 삼회향놀이는 가무를 겸한 연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본 의식의 뒤풀이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각자 마음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주인공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불교조계종 금강계단 수계법회



정정계를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은 제21회 종단 금강계단 수계법회를 총본산 여주시 강천면 소재의 백화사에서 봉행했다.

수계법회에서는 전계대화상에 혜인 스님, 교수사사리에 혜일 스님, 갈마사사리 덕운 스님이, 정산, 정오, 혜일, 대봉, 법성, 태산, 금산스님이 7중사로 나섰다. 수계스님 13명과 각 사찰의 주지스님 50명과 신도 200여명이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전국연합캠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지난 7월 24~27일 낙산 에어포트콘도 등 강원도 양양 일원에서 ‘제17회 청소년전국연합캠프’를 개최했다.

“꿈을 찾아 떠나는 만남의 캠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캠프는 전국의 파라미타 700여 명과 지도자 200여 명 등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캠프는 입소식을 시작으로 청소년백일장대회와 청소년음악놀이축제, 명상, 발우공양게임, 공동체놀이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이나은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순수한 불제자로서 수행과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원장 석경보 / 사무총장 석도연

본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는 석가모니의 교리를 받들어 널리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고자 석가모니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한 가르침을 통해, 인간은 자연과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마음속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우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슬픔은 가시 수 없다. 인류의 삶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평등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인간에게 불안과 불평 그리고 분노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공포, 불안, 걱정, 슬픔, 불안,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괴로움이라합니다. 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통해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목표로 그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 총본산 제동산 관음사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길 43번길 13-11 (제동리 321-2번지)
전화 : 055)295-5100, 742-0246 홈페이지 : http://www.jogyejong.org

입종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총본산 비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전후면 사진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찰 법당 내외부 사진1매
  - 타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2 발급 증명서

- 승려증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간부 스님 임명장

문의 : ☎055)295-5100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